

# 1000

## Inspiring and Unforgettable Moment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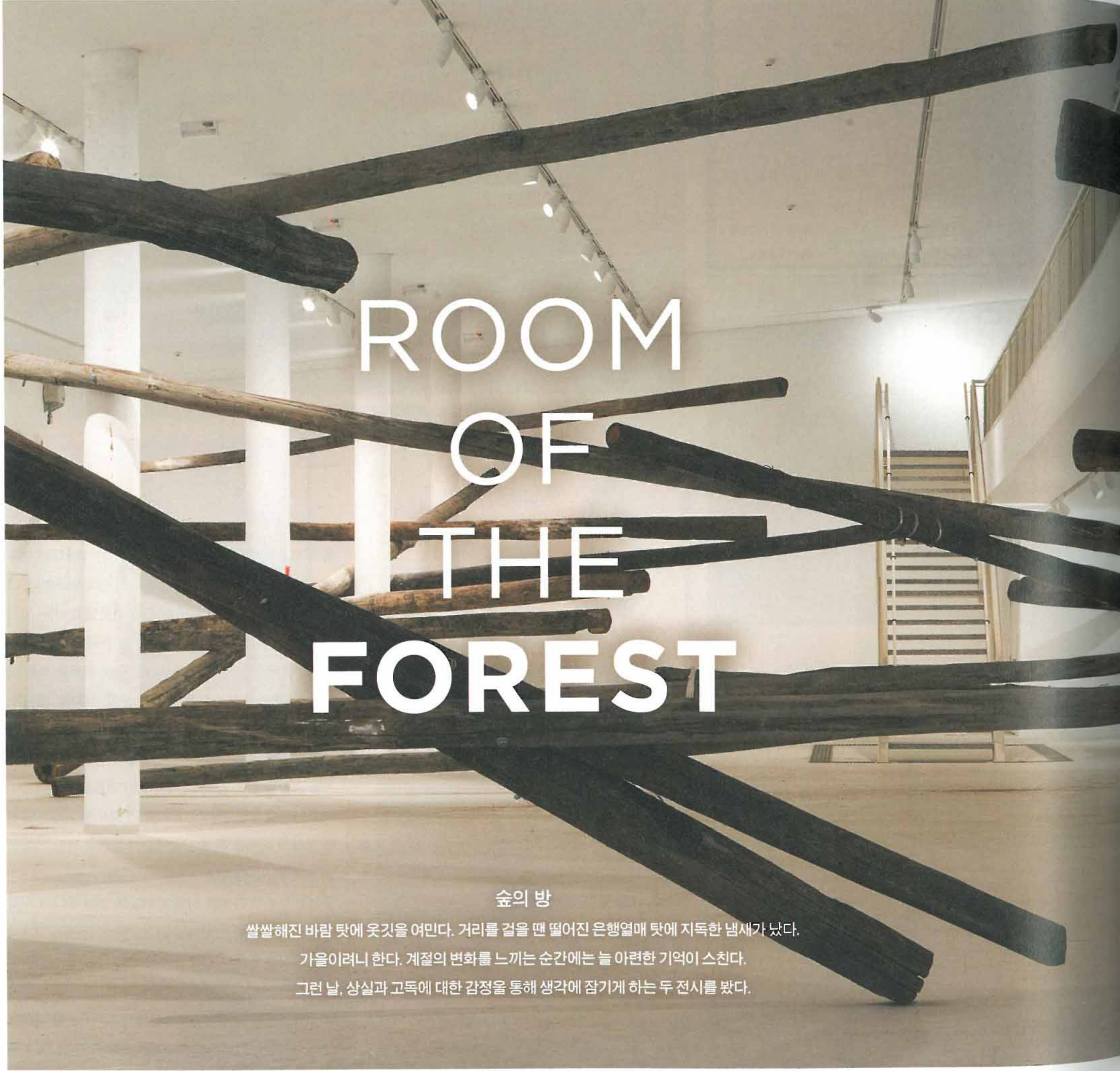
### j.j.magazine

from  
August  
2005  
to  
November  
2013

MEMBERSHIP  
MAGAZINE OF  
GRAND HYATT SEOUL

MONTHLY LIFE DESIGN MAGAZINE  
NOVEMBER 2013  
No.100





# ROOM OF THE FOREST

## 숲의 방

쌀쌀해진 바람 탓에 옷깃을 여민다. 거리를 걸을 땐 떨어진 은행잎때 탓에 지독한 냄새가 났다.

가을이려니 한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에는 늘 아련한 기억이 스친다.

그런 날, 상실과 고독에 대한 감정을 통해 생각에 잠기게 하는 두 전시를 봤다.



## CARLITO CARVALHOSA

브라질 출신 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는 국내 첫 개인전을 위해, '대기실'이라는 의미의 작품, <살라 드 에스페라(Sala de Espera)>를 선보인다. 이 설치작업은 갤러리 공간 전체를 육중한 나무기둥으로 채운 작품인데, 그것이 꼭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와 자생한 것처럼 보인다. 덕분에 나무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운다. 특별한 가이드라인도 없기에 관객은 스스로 나무기둥을 만지거나, 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하며 나무기둥을 보기도 한다. 그럼 조금씩 다른 풍경이 보인다. 일단 나무기둥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한때 가로등으로 쓰던 전신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각각의 나무는 그 나름의 역할을 담당했고, 시간을 품고 있다. 여기엔 작가의 어린 시절의 추억과 브라질의 과거가 향기처럼 배어 있다. 현재 사용하지 않아 상실된 존재지만, 가장 현대적인 공간에 침투해 작품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잠기게 된다. 마치 대기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생각에 잠기듯이. 국제갤러리 K3관에서 11월 12일까지 열린다.



칼리토 카르발료사는 1961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다. 그는 1984년 상파울루 대학의 건축 및 도시학과에서 건축학위를 받았다. 카르발료사는 국제적인 전시 및 비엔날레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전시기관으로는 상파울루 국제비엔날레, 하바나 비엔날레, 브라질 세culo XX 비엔날레, 메르코술 비엔날레와 프랑스 보르도 CAPC에서 열린 <코트야코트 브라질 컨템퍼러리 아트 전> 등이 있다. 또한 그는 뉴욕 현대미술관,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 상파울루 현대미술관, 리우데자이네루 제국궁전, 라쿠엘 아르노 아트센터와 갤러리아 밀란 등에서 열린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그의 설치작품 <살라 드 에스페라>는 상파울루 현대미술관 별관의 개관기념 작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Carlito Carvalho, Sala de Espera [Waiting Room], 2013, telephone poles, steel bolts installation view, Museu de Arte Contemporanea da USP, São Paulo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